

#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

협회지 제 75-1호 2003년 10월 16일(목)

## 제목1: ☑ 협회소식

-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임시회의를 10월 7일(오늘 오후2시)에 협회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.

협의내용과 그 경과사항입니다.

- 1, ① 도축수수료 현실화 추진경과 보고 -11월내에 고시에정
- ② 공정경쟁협의회(조정,중재역할)구성의 건 -현 이사진으로 구성
- ③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 세금계산서발행의 건 -국세청본청과 재정경제부에 질의된 답변(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서 등급판정소로 확인시 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함으로 회신하겠다고 함)의 결과대로 등급판정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(소장님과 담당자 확인)
- ④ 협회사무실 임대의 건 -축발기금사무국과 임대계약 완료

## 제목2: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 물량 크게 늘어나

- 전년동기대비 97.2% 대폭 증가 -

축산물등급판정소는 8월중 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을 통해 도매시장, 공판장에 상장된 물량이 14,107박스(672두분)로 전년동기보다 6,955박스(331두분)가 늘어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.

8월중 쇠고기부분육 등급 확인 물량은 시행 당시('02.2월)보다 16.8배가 늘어났고 전월 보다는 35.3%(3,681박스) 늘어난 최고치를 보였다.

이중 낙찰된 물량은 7,753박스(369두분)로 전월보다 23.8%(1,491박스, 71두분)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쇠고기부분육 등급표시 확인은 "'02.2월 안양 협신식품에서 상장, 경매를 시작으로 농협서울, 삼성식품, 대양식품 등 모두 4개 도매시장(공판장)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, 쇠고기 부분육 유통의 활성화로 산지 도축이 늘어남으로써 육류유통비용 절감, 위생, 안전성 제고 및 도시환경이 개선되고

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돼지고기 부분육 등급 표시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

발체: 축산물등급판정소

## 제목3: 돼지고기 수출 재개 관심

-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위한 현지 조사단 파견을 알려와 제주산 등 돼지고기 수출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최근 한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오는 12~18일까지 일본 조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구제역 근절상황과 제주도의 돼지콜레라 유입방지상황 등 현지조사를 통해 수입 재개여부를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이번 조사단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열처리 가공돈육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실사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.

발체: 농업인신문

TEL 031-391-9767,

FAX 031-395-6661

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-6

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